

무주경찰, 신병비관 자살기도자 신속 후송 생명 구해

무주경찰서(서장 한도연) 주제
파출소(소장 최
식배 경감)은 근
무하는 경위 최
순식, 경사 양성
민, 순경 김혜림
등은 지난 22일
정월대보를 유포
리 잠두마을 행



사관련 안전사고 및 공간순찰활동 중 교통사고 신고를 접하고 긴급히 출동하여 김모(남·43)씨를 신속히 후송조치로 목숨을 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최순식 경위 등 3명은 대보를 행사관련 순찰 중 산불감시원으로부터 차량 앞에 사람이 쓰러져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이번에도 차량 옆에 쓰러져 배를 움켜쥐고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하는 김 모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

최 경위 등 3명은 쓰러져 있던 김 모씨의 주변 등 남여러지 일원을 수색 중에 제초제인 글라신(300ml)과 차량 조수석에서 번개탄을 발견하고 교통사

고가 아닌 음독자살로 판단하고 즉시 119에 긴급출동을 요청하여 대전에 진
양대병원으로 신속히 후송하여 구조하게 됐다.

이날 김 모씨는 자신의 신병을 비관한 나머지 제초제와 번개탄을 피워 자
살을 기도했으나 최 경위 등에 조기 발견되었으며, 이들의 신속한 판단력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조치로 꾸준한 생명을 되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경위 최순식, 경사 양성민, 순경 김혜림 등 3명은 주제파출소에서 근무하
며 주변 동료들은 물론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을 돋는 모범적 활동을
하는 경찰상의 표본이며,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충실히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잠두 마을은 대보를 행사로 분주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
해 북적여 최 경위 등은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순찰 활동을
하면서 산불 감시원의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긴급 출동해 께서 가는 생명
에 희망의 불씨를 달겼다.

마을주민들은 “어른들의 안전과 절도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마을 행사 때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돋는데 앞장사는 모범적 경찰관에게 큰 친사를 보낸
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 새내기 경찰관들 구조현장서 맹활약 '귀감'

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 새내기 경찰 최요한 순경, 이규정 순경이 자
살기도자 구조부터 치매환자나 구조까지 현장에서 맹활약을 펼쳐 주민들의
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작년 8월 중앙자구대에 발령받은 283기 최요한 순
경은 근무 중 지난 17일 오후 5시경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신병 비관한
자살기도자가 디啷의 수면제를 먹고 차에서 신음을하고 있는 것을 신속 출
동, 적극 수색하여 밤 끝에 초기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무사히 구조하
였다.

또 중앙자구대 소속 이규정 순경은 지난 18일 오후 4시경 길을 잃은 치
매환자를 발견해 관리사무소, 경로당 방문 등 적극적인 팀문을 통해
주거지 확인, 안전하게 인계하여 훈훈함을 더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기안전공 - 보훈복지의료공단, 부정부패 척결 '한마음'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공사’)는 23일,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본사 창
조루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안상현 상임감사가 함께
한 가운데 두 기관은 △반부패 청렴활동의 공동 추진, △감사 정보의 공
유, △우수사례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자체 감사기구 간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 상임감사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대개
조의 중심축”이라면서 “양 기관의 이번 협약이 우리 사회 부정부패 척
결과 감사 문화 혁신의 구심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전주 노송동, 노송민속문화축제 '성황'

노송동(동장 박병국) 노송민속문화축제위원회(위원장 엄광표)는 지난 22일
정월 대보를 맞아 주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송동주민센터 인근
노송공원에서 전통민속문화를 계승하고 ‘천사마을 기부문화’ 확산 등 민족의
세시풍속인 제9회 노송민속문화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특히 매년 낮밤없이 기부해 온 ‘얼굴없는 천사’의 기부정신을 확산시키고
나눔 문화를 공유하고자 행사를 통해 모인 기부금 등을 관내 배려계층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엄광표 노송민속문화축제위원회는 “매년 추진해 온 민속문화축제에 천사마을
을 기부문화를 기여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고 이웃사랑까지
실천하는 의미있는 축제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노송민속문화
축제가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
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법무부 법사랑 위원회 부안지부 은희준 회장 취임

법무부 법사랑 위원회 부안지부는 지난 22일 행복한웨딩홀 4층에서 은희준
회장을 10대 회장에 취임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영현 전주지방법원행정처장, 장태영 검사, 이주현검
사, 한승훈검사, 권인표 검사, 성천오사무과장, 김종규 부안군수, 임기태 부안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 법사랑 부안지부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영현 정읍 지청장을 축사를 통해 “이영식 전임회장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새롭게 시작하는 은희준 회장이 이끄는 신임 협의회가 비행청소년 범죄예방
과 선도 교육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전주지방법원행정처장 정읍지청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은희준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배려와 소통하는 마음으로 청소년들의 건
전한 활동에 힘을 기울이고 법사랑 위원 및 회원들과 화합된 봉사활동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희준은 “회원 간 친목을 공고히 하고 병신년 새해 회원들 모두의 건
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며 올 한해 부안지역 발전에 대한 협신과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전주 우아1동, 자생단체 임원진 간담회 개최

우아1동(동장 정경순)은 23일 자생단체 임원 10여명을 초청해 관내 현안사업
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경순 동장의 부임 인사와 함께 진행된 간담회는 시정, 동정 업무에
대한 간단한 설명에 이어 올 해 추진해야 할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견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우아1동 정경순 동장은 “항상 우아1동 발전을 위해 혁신적으로 봉사하는 자
생단체 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하고 살기 좋은 우아1동을 만
들수 있도록 자생단체가 서로 화합결속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하림, 임직원 자녀 대학생 40명에 장학금 전달

닭고기 전문 기업인 하림이 임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사랑의 장학금을 전
달했다.

지난 22일 하림 본사에서 이문용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 3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임직원 자녀 대학생 40명에게 3,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하림 임직원들이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적립된 미일리지를 활
성화 금액과 제품 판매장, 자판기 운영, 폐지 및 폐자재 매각 등을 통해 장학
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장학금에는 하림 농가협의회에서도 뜻을 같이 했으며, 하림 여직
원들의 모임인 ‘하미즈’도 아침밥 나누기 행사를 통해 모아진 정성을 기부해
훈훈함을 전했다. /의선=장학원 기자

순창청년회의소, 이륜차 사고예방 안전모 경찰에 기증

순창청년회의소(회장 김기열)는 23일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를 방문, 농촌
지역 빈발하는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모 63개를(200만원상당) 기증했
다.

노인층 주 운송수단인 이륜차의 운행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안전모
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교통안전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현장 작업모를 착용하는
등 이륜차 교통사고에 취약한 주민들에게 안전모를 무상으로 지금 하
여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순창경찰서와 순창청년회의소가 공
동 추진했다.

김기열 순창청년회의소회장은 “평소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발하
여 안타까웠으며 어르신들의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속적
으로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순창=구인규 기자

전주 제1지역 로타리클럽, 삼천·중앙동에 공부방 개소

국제로터리18670지구 전주 제1지역 로타리클럽(전주풀남, 전주노령, 전주
해바라기, 전주평화, 전주호남)에서는 23일 전주시 삼천동과 중앙동에 로
타리제자단 글로벌 보조금으로 ‘로타리 공부방(Rotary Learning Center)’을
두 곳을 개소했다.

다섯개 클럽 공동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아동들이
기본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업능력향상을 위해 전주시 삼천동 소재 ‘조은
지역이동센터’와 전주시 중앙동 소재 ‘전주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공부
방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고 향후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글
로벌 보조금으로는 시설, 인테리어, 책상, 의자, 책장, 도서 등 학습교구,
그리고 컴퓨터, 프로젝터, 냉난방기, 재습기, 프린터 등 전자제품 등 약 5
천585만원 상당의 물품 일체를 지원했다. /김영재 기자

민주평통 전주시협의회, 통일의견수렴·정기회의 개최

민주평통전주지문회의 전주시협의회(회장 나춘규)는 24일 전북여성교
육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자문위원 100여명이 참여해 1분기 통일의견수렴 및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자문위원들은 지난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특징과 대
내외적 의도를 명확히 인식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할 예정이다. 또한 통일시대를 주도적으로 준비해나갈 청년층의 통일의
식 제고와 참여확산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고민하게된다.

이날 민주평통은 2014년부터 추진해온 어깨동무하기 사업(탈북청소년
멘토링)의 멘티 학생 10명에게 새학기 준비를 위한 장학금도 전달할 계
획이다. /김영재 기자

농어촌공 전북본부, ‘사랑의 현월’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본부장 김학원)는 23일 지역본부 육지 주차장
에서 직원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현월’을 실시했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자지만 소중한 사랑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크나큰
힘이 될 수 있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속
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임실군총산업연합 대상 비즈니스테이블 개최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22일, 임실읍사무소에서 임실군총산업연합회를 대상으로 비즈니스테이블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전북테크노파크 김용배 기업지원단장, 컨택센터 전문위
원 및 임실군 과총기업 8개사의 실무자 대표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전북테크노파크 김용배 기업지원단장은 “임실군 과총기업의 참여로 인
해 곤충산업을 위한 기업지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기쁘다”며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직접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광영 기자